

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, 유민종 지사장 취임

김종윤 기자 | 승인 2022.01.17 13:01

지역 농어업인과 적극적인 소통, 고객만족 경영 실현



유민종 지사장/농공사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는 사천지사장에 유민종(55) 전 합천지사 농지은행부장이 지난 13일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.

유 지사장은 거제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거창·함양, 밀양, 진주·산청, 합천지사 농지은행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.

유 지사장은 “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지역 농어업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”고 취임소감을 전했다.

또 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,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조성 등에 앞장서겠다”고 다짐했다.

[신아일보] 사천/김종윤 기자

저작권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종윤 기자 기자